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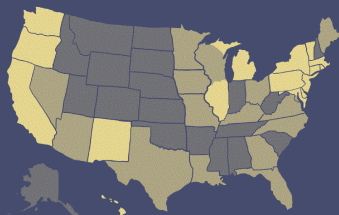
보통의 어른을 위한 소소하고 절대적인
영어 상식 100

영어

잡학 사전

구경서 지음

시사, 정치, 역사, 종교 편



선거철이면 미국을 도배하는
blue, red, purple

- Red
- Blue
- Purple



통조림 SPAM의 별명은 Hawaiian Steak



어서 오게, 트럼프!



양두의 침묵,
요즘 영어 좀 알려줄까?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한 sacred cow와 바둑의 관계는?



길벗
이지:북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토익, 토플, 시험 영어에 지쳐 정말 재미있는 영어의 세계를 모르는 학생들이 안타까웠다. 수업시간 틈틈이 영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려주고, 궁금증을 찾아 풀어주면서 영어 상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전 세계 웹사이트와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어 총망라한 영어 상식을 그대로 두기 아까워 책으로 엮었다.

삼성전자 미주수출부에서 근무하면서 수출부 직원을 위한 business letter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미국 현지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를 직접 영문으로 제작하는 등 실무 영어에서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해 왔다. 삼성그룹 시절 자체 TOEIC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강남에서 인기 영어강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

《Must do! 시험에 꼭 나오는 영문법 100가지》 길벗이지톡

《영문과 교수도 몰래 보는 영어 상식 사전》 길벗이지톡

《영문과 교수도 틀리는 영어 상식 퀴즈》 길벗이지톡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단어 활용 편》 길벗이지톡

보통의 어른을 위한 소소하고 절대적인

영어 상식 100

영어 잡학 사전

구경서 지음

시사, 정치, 역사, 종교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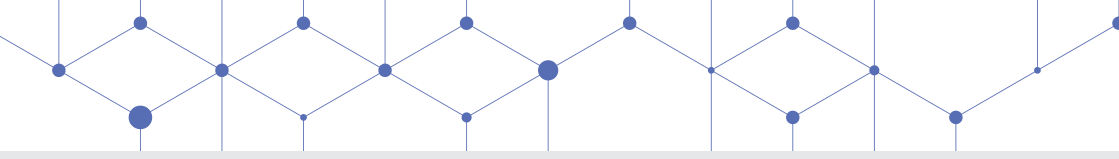


세상 공부가 절실한 다 큰 어른들의 기초 교양영어 클래스

점수 따기 외국어 공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휘를 접하고 익힌다는 것은 해당 국가나 민족의 문화, 역사, 그리고 국민 정서를 감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소재와 어휘를 고르고 한 페이지씩 원고를 써 나가면서 염두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독자 분들께서 이 책을 소설처럼 가볍게 일독하고도 영미권 문화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 둘째, 이 책이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일종의 동기화 버튼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다룬 소재는 군사, 정치, 경제부터 팝뮤직과 영화배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차 마실 때 10~20cm에 불과한 ‘차잔과 입술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한 빠곳함_{slip} 때문에 차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심에 경고를 하는 문구가 ‘There’s many a slip between the cup and the lip.’입니다. 이런 방심에 대한 우리식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지 독자 분들께서 비교해 보길 바라며 내용을 선정하고 집필했습니다. vanilla sex처럼 성적인 표현도 있는데, 이를 소개한 것도 원어민의 mentality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이나 유래가 불확실한 소재를 언급할 땐 ‘몇 가지 유래 중 하나에 불과’ 또는 ‘유력한 기원’ 등으로 나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말의 ‘식모 vs. 가사 도우미’처럼 같은 개념이지만 시대에 따라 활용이 달라지는 영어 단어도 최대한 많이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어로 웹서핑해서는 거의 만나보기 어려운 ‘서양식 오븐에서 갓 나온’ 표현들도 듬뿍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인문 서적에서나 접할 수 있던 개념들을 쉬운 영어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경서



차례

001	똑같이 민주당 찍지만 너무 다른 San Francisco와 Massachusetts	010
002	hippie 때문에 맞짱 뜬 <San Francisco>와 <Massachusetts>	012
003	선거철이면 미국을 도배하는 blue, red, purple	014
004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caucus와 primary의 차이	016
005	다음 백악관 주인을 알고 싶어? 그럼 New Hampshire를 지켜봐야지!	018
006	town meeting과 town hall meeting의 차이는?	020
007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합해도 pig 한 마리를 못 이긴다?	022
008	Teflon이라는 수식어를 거머쥔 사람들	024
009	공화당이 민주당에 심어 놓은 X-Men이 있다?	026
010	roadkill과 latte에는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028
011	WASP, 애들은 원데 자기네 아니면 개무시할까?	030
012	Nixon Doctrine과 Nixon Shock은 베트남이 미국에 날린 두 방의 강펀치	032
013	Deep South에 대한 공화당의 애정 공세	034
014	false flag는 전 세계 공작 정치의 기본 메뉴	036
015	Fox News는 욕하면서도 보는 뉴스... 잘나가는 비결은?	038
016	미국을 superpower로 만든 대통령 3인방	040
017	Roosevelt 대통령이 dime의 모델이 된 사연은?	042
018	Mt. Rushmore의 거대 조각상 모델 4인의 대통령... 선정 기준은?	044
019	Irish는 coffin ship을 타고 죽음과 공포의 대서양을 건넌다	046
020	Kennedy 집권기의 별명인 Camelot era는 뭘까?	048
021	쿠바 미사일 위기는 Kennedy의 자업자득	050
022	Kennedy 암살에 대한 Malcolm X의 chicken 발언	052
023	prairie lawyer인 Lincoln의 노예 해방은 lip service에 불과했다?	054

024	Square Deal, New Deal, Fair Deal? 미국 대통령들은 Deal을 좋아하나 봐!	056
025	얼마나 호황이었으면 미국 19세기 말은 Gilded Age라고 불릴까?	058
026	Roaring Twenties: 광란의 1920년대 미국	060
027	Prohibition은 지키지 못할 '허수아비 악법'	062
028	Al Capone는 Prohibition이 만든 스타이자 부작용	064
029	polygamy로 따가운 시선을 받은 Mormon교	066
030	Quaker Gun은 통나무로 만든 '구라' 대포	068
031	달러의 'In God We Trust'는 정말 형식적인 문구일까?	070
032	'종의 기원' 반대는? creation? 아니, intellectual design	072
033	한글판 Apostles' Creed는 엉터리 번역	074
034	Sixpence None the Richer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경고	076
035	Catholic 신자가 많은 나라는 정말 가난한가?	078
036	Underground Railroad는 '지하'도 아니었고 '철도'도 아니었다	080
037	separate but equal? 차라리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고 말해라!	082
038	Trail of Tears는 인디언의 고통과 슬픔의 상징	084
039	Indian reservation은 그 자체로 미니 국가	086
040	Missouri 주는 서부 개척의 전초 기지	088
041	대륙횡단철도를 따라다닌 Hell on Wheels의 정체는?	090
042	Texas는 영국 낚새 zero인 진정한 미국	092
043	옛날 Alaska의 별명은 sucked orange	094
044	Main Street의 Main은 big이 아닌 small을 의미	096
045	총기 사용에 목숨 거는 NRA의 주장,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	098
046	Sleepy Hollow는 New York의 마을 이름이다	100
047	Apple의 "Think different"는 엉터리 문법 표현?	102
048	정치권에는 wingnut, 브랜드에는 fanboy	104
049	통조림 SPAM의 별명은 Hawaiian Steak	106
050	Hitchcock 감독이 열광했던 ice-cold blonde 미녀는 누구?	108

051	cactus curtain? '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은 않지만...	111
052	Cajun 요리는 '프랑스, 스페인, 미국 남부, 카리브'가 짬뽕된 요리	112
053	Emmy, Tony, Grammy, Oscar... 이 상들에 숨겨진 사연을 알려주마!	114
054	Diana 왕세자비의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Al Fayed	116
055	영국의 Harrods 백화점은 복장과 두발까지 단속한다?!	118
056	British Islands와 British Isles는 뭐가 다르지?	120
057	<Rule, Britannia>는 영국 제2의 애국가	122
058	영국의 hereditary peers는 고려시대 음서제보다 더 심하다	124
059	영국 Victoria 여왕의 별명은 '유럽의 할머니'	126
060	Henry 8세의 여섯 명의 왕비 ①	128
061	Henry 8세의 여섯 명의 왕비 ②	130
062	대만과 수교한 유일한 유럽 국가인 Holy See?! 어디 있는 나라?	132
063	시진핑은 서양의 panda hugger를 좋아한다?	134
064	Poppy Day는 현충일	136
065	Guinness 맥주의 logo가 악기 harp인 이유	138
066	sauwastika와 swastika의 의미는?	140
067	Russian을 Tartar인이라고 혐오했던 Napoleon	142
068	Medusa와 medusa는 다르다	144
069	총포탄보다 비위생이 더 무서웠던 trench warfare	146
070	Starbucks의 마케팅 실패... 초심인 'Do well by doing good.'을 잊었기 때문	148
071	미국에서는 Starbucks에 충을 갖고 갈 수 있다? 없다?	150
072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한 sacred cow와 바둑의 관계는?	152
073	AlphaGo에게는 없는 인간의 'rule of thumb'은?	154
074	정준하의 전자두뇌, 회전초밥 계산법과 heuristics	155
075	미국 유명 IT 기업의 면접질문 : 시카고에 psychic은 몇 명?	156
076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몸담았던 '서북 청년단'은 useful idiot	158
077	일본의 트렌드는 뭔가가 다르다, small-in-Japan의 탄생	160

078	<양들의 침묵>의 Buffalo Bill을 기억합니까?	162
079	재해 지역마다 고개를 내미는 welfare queen의 정체는?	164
080	미국 외교의 3대 keyword는 cowboy, big stick, dollar	166
081	axis of evil뿐만 아니라 asses of evil도 있다	168
082	Rumsfeld 장관의 known unknowns와 unknown knowns	170
083	탈옥수 신창원은 일부 여성에게 alpha male이었다	172
084	grandfather clause는 기득권의 갑질	174
085	Barack Obama는 왜 혼혈인이 아닌 흑인인가?	176
086	Tiger Woods의 독주를 방해하는 Tiger-proofing	178
087	Arnold Schwarzenegger는 riser로 팬들을 속였다?!	180
088	Angelina Jolie의 변신은 from heroin to heroine으로 요약된다	182
089	밴드 이름 Guns N' Roses는 새로 생긴 idiom?	184
090	Queen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는 심폐 소생술 훈련의 BGM이다?	186
091	David Bowie와 Boy George는 drag queen	188
092	camel's nose를 조심해!	190
093	Not guilty를 '무죄'로 번역하는 한국 법조계는 각성해야 한다	192
094	질투와 시기로 괴로운 tall poppy란?	194
095	Sweden에는 sex seller는 봐주고 sex buyer만 처벌하는 법이 있다!	196
096	유럽의 '미운털 No. 1'인 Jew... 뭐가 그렇게 별난 걸까?	198
097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Fail-Deadly system이 있으니까	200
098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간 Little Boy와 Fat Man의 정체는?	202
099	미국에는 '모든 폭탄의 어머니'가 있다?!	204
100	Russia에는 '모든 폭탄의 아버지'가 있다?!	206

OmniDictionary for American /British cultural studies

politics / history / religion

영어, 탐독의 즐거움

영어 표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미국 문화와 에티켓이 수록되어 있으니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Fox News는 욕하면서도 보는 뉴스... 잘나가는 비결은?

Fox News는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Rupert Murdoch이 소유한 News Corp.의 전체 계열사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체이며, 미국 언론계의 최대 말썽꾸러기이자 노골적인 공화당 propaganda machine [선전도구](#)입니다. 여타 방송사보다 영업 이익 규모도 크고 영업 이익률도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Fox News가 corporate journalism [기업형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은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에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며 추측성 보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돈 드는 탐사 보도? 기획 취재? Fox News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Fox News의 구호 중 하나가 “More News in Less Time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뉴스를](#)”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죠. 인건비는 확실히 절감되지만 기사의 품질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둘째 비결은 ‘막가파’식 보도 자세입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배려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네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입 닥치라고 호통 치듯 보도합니다. ‘호불호’ 중에서 ‘불호’에게는 완전 ‘개무시’ 전략을 쓰죠. 그런데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호’ 측 입장에서 속이 뻥 뚫리는 보도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따라하는 것을 foxification 또는 Fox News Effect라고 부릅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는 몇몇 미국 중소 케이블 방송사가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종편 방송도 이를 차용하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Fox News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서, 그로 인해 얻게 된 별명이 Fox Noise, Sly-as-a-Fox News, Murdoch Crime Family Channel, Tabloid TV, Christian Taliban 등 여러 개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Faux News 짜퉁 뉴스, faux: 모조의, 짜퉁의입니다.

“We Report. You Decide. 우리는 보도하고, 판단은 시청자 당신이”, “Fair and Balanced 공정하고 균형 잡힌”라는 Fox News의 공식 slogan에 비판자들은 “We Distort. You Comply. 우리가 왜곡하면 너희는 그냥 순응하라구”, “Fairly Unbalanced 상당히 편향된”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반격하기도 합니다. 안정적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Fox News의 conservative bias 보수 편향와 right wingnut 수구꼴통 성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영국의 Harrods 백화점은 복장과 두발까지 단속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Harrods 백화점의 slogan은 라틴어로 “Omnia Omnibus Ubique”입니다. 영어로는 “All Things for All People, Everywhere”인데, ‘어디에서나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Harrods의 주요 고객들로는 영국 왕실의 귀족들을 비롯해 Charlie Chaplin, Oscar Wilde, Sigmund Freud 등 여러 celebrity들이 있습니다. Harrods는 Royal Warrant 5년마다 갱신하는 왕실비품 공급 허가증을 소유했던 적이 있을 만큼 영국 왕실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故 Diana 왕세자비의 연인이었던 Dodi Fayed의 아버지 Al Fayed는 Diana와 Dodi가 죽은 후, 이들의 사고에 영국 왕실이 개입돼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화점에 전시돼 있던 영국 왕실의 문장들을 모두 없애고 Royal Warrant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안에 Diana와 Dodi의 실물 크기 동상을 제작해 별도로 마련된 기념관에 전시하기도 했죠. ‘Innocent Victims 무고한 희생자들’라는 제목의 이

동상은 죽은 두 연인이 사랑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albatross **신천웅**를 날려 보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인 만큼 Harrods는 나름 콧대 높은 customer dress code **고객 복장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군복이나 스카우트 복장으로는 입장 불가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헤어 외에는 전부 삭발하고 남은 헤어를 닳벼슬처럼 세우는 mohawk **mohican** hairstyle을 한 여성과 95kg이 넘는 여성은 입장할 수 없다는 점은 특이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안 됩니다. backpack을 맨 고객에게는 가방을 손에 들고와 권고합니다. 여럿이 떼 지어 다니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hereditary peers 세습 귀족는 고려시대 음서제보다 더 심하다

영국 의회는 양원제 bicameralism입니다. House of Commons 서민원: 하원와 House of Lords 귀족원: 상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House of Lords는 영국 정치의 수치이자 골칫거리입니다. 선출직으로 구성된 House of Commons와는 달리, House of Lords는 귀족과 성직자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종신직입니다. 의원 수가 무려 704명이나 되는데, 조상 대대로 귀족 작위를 물려받은 세습 귀족 hereditary peers이 92명, 정당 추천과 상원 임명 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종신 귀족 life peers이 587명, 영국 국교에서 지명하는 성직자 의원이 25명입니다. 그나마 세습 귀족 92명은 줄어든 게 이 정도입니다.

전체 상원의원 수를 300명 수준으로 줄이고 귀족원이라는 명칭도 고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워낙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

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수백년간 쌓여 온 각종 판례들 [judicial precedents](#), Magna Carta [대헌장](#), Petition of Rights [권리청원](#), Bill of Rights [권리장전](#) 등이 영국의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없다 보니 영국 수상은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식의 선서 대신 [oath of allegiance to the Queen](#)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합니다.



Starbucks의 마케팅 실패... 초심인 ‘Do well by doing good.’ 을 잊었기 때문

양성평등, 인종차별 금지, 빈부격차 해소 등 바람직하다고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목표나 가치를 **cause**라고 합니다. 이러한 **cause**를 활용하는 마케팅은 **cause marketing**이라고 부릅니다. Starbucks는 ‘Race Together **모든 인종이 다 함께**’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커피잔에 Race Together라는 문구를 적어 주거나 그 문구의 스티커를 붙여 주기도 했고, 인종 문제에 관해 고객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 소규모 토론회까지 열었죠. 하지만 이 캠페인은 욕만 잔뜩 얻어먹고 끝나버렸습니다. **cause marketing**은 조용히 그리고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오버’한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Starbucks 직원들이 주문서에 아시아인 고객을 비하해서 **slant eyes** **slant**는 ‘경사진’이라는 뜻으로 찌어진 눈을 의미나 **chinky eyes** **chinky**는 ‘금이 간’이라는 뜻으로 작은 눈을 의미라고 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Race Together로 인종차별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정작 Starbucks의 광고에는 백인들만 등장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죠.

이런 전과들(?)이 이 캠페인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사실 Starbucks는 Race Together 캠페인이 있기 2년 전에 Come Together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못하며 정쟁만 하는 것을 타깃으로 해 ‘서로 협력하라’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이었는데, 당시의 좋은 반응에 너무 고무되어 cause marketing의 기본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cause marketing의 기본 원칙은 Do well by doing good.입니다. 모범을 보여서by doing good 좋은 성과를 내라do well는 의미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말한 sacred cow 신성한 소와 바둑의 관계는?

sacred cow 신성한 소는 물리적으로는 힌두교에서 신성시되는 소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신성시되어 함부로 비판하거나 토 달면 안 되는 관습이나 제도를 비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세돌 9단과 AlphaGo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어쩌면 우리가 바둑을 sacred cow로 모시고 살아온 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Google DeepMind의 CEO인 Demis Hassabis는 바둑의 경우의 수가 사실상 무한함을 강조했지만, 이진 단순한 lip service이거나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둑판에서 집을 만들기엔 4개의 코너, 다음으로 4개의 변이 효율적이며 중앙에서는 매우 힘들다는 기초 중의 기초만 파악하고도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아 보이지만 각 착수점의 가치는 다르다. 인간을 이기는 프로그램? 가능하다.’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한 · 중 · 일도 충분히 AlphaGo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신성한 영

역으로 여겨 ‘외지인’에게 기회를 뺏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

“Sacred cows make the best hamburger. 성우로 만든 햄버거가 가장 맛있다.”라는 우스갯소리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격언이 있습니다. Hassabis는 바둑이라는 동양의 sacred cow를 용기 있게 도살해 AlphaGo라는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먹은 겁니다.





정준하의 전자두뇌, 회전초밥 계산법과 heuristics 발견적 학습법

몇 년 전 MBC의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개그맨 후배들에게 회전초밥을 사 주면서 최종 계산서 금액을 추정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려면 접시를 색깔별로 구분해 몇 번의 곱셈을 해야겠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그는 ‘대충 보니 접시는 200개 정도이고 비싼 접시가 좀 더 많은 느낌’이라는 소위 ‘통밥’으로 계산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것도 rule of thumb입니다. rule of thumb을 좀 더 ‘고급진’ 어휘로는 heuristics 발견적 학습법이라고 부르는데,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있을 때 그동안의 경험, 시행착오, 직관을 약식으로 적용해 얻어내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AlphaGo 개발팀을 포함한 서양의 바둑계에서는 바둑의 정석을 heuristics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heuristic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brute-force calculation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 ‘귀차니즘’ 때문입니다. 이 귀차니즘을 심리학에서는 cognitive miser tendency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유명 IT 기업의 면접질문: 시카고에 psychic 심령술사은 몇 명?

cognitive miser tendency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임
기응변식 '뻔질'이 성향을 말합니다. 전체 algorithm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 계산을
을 위해 지불해야 할 각종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heuristics의 높은 가성비와
유용성이 눈에 들어온 거죠.

미국의 어느 유명 IT 기업에서 '현재 시카고에서 영업 중인 psychic 심령술사은
몇 명이겠는가?'라는 다소 황당한 면접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과 근거로
정답에 접근하는지를 관찰하면서 heuristics 능력을 알아보려는 질문이었습
니다. 어차피 이런 질문에는 정답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확함보다는 '근사치+신속함'이 더 중요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의미 있는 겁니다. 수학, 과학에서 배우는 각종
공식과 지식이 아니라, 공부만으로는 터득할 수 없는, 세상살이를 위한 '눈치+

코치'의 처세술을 의미하는 **streetsmarts**도 **heuristics**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회사가 어느 직원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온 걸 보니 '공부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일머리'는 별로인 것 같다고 평가한다면 **heuristics**와 **streetsmarts**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Barack Obama 버락 오바마는 왜 혼혈인이 아닌 흑인인가?

Barack Obama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그를 흑인이라고 할까요? 백인에게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간주하는 one drop rule 때문입니다. 여기서 one drop은 one drop of black blood 한 방울의 흑인 피를, 더 정확하게는 one drop of Sub-Saharan African ancestry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인 혈통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invisible blackness 보이지 않는 흑인 혈통까지 찾아내서 백인 발밑에 두려는 hypodescent의 완결판입니다.

hypodescent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부모의 인종 중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쪽 혈통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1985년 Louisiana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 사람의 할머니의 4대 조상이 흑인이기 때문이라며 칼같이 one drop rule을 적용했죠. 이놈의 원

칙은 인종 분류에서 시비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등장합니다.

Native American도 자신들의 고유 혈통 여부를 따질 때 Indian blood laws 또는 blood quantum [양,분량 laws](#)를 적용합니다. 인디언으로 판정받으면 reservation [인디언 보호구역](#)에 등록할 자격이 생기고 연방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족마다 조금씩 판정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혈통 조사에서 대개 25% 정도 인디언 혈통인 게 확인되면 자기네 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인디언들도 별 수 없다는 게 full blood [비혼혈인 순종](#)만이 Cherokee [체로키족](#)라는 Cherokee by blood 원칙입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백인에게서 도망친 흑인 노예들이 Cherokee 영역으로 들어와 인디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을 Cherokee Freedmen이라고 부릅니다. 몇 세대에 걸쳐 Cherokee와 흑인 사이에 혼혈인이 태어났으며, 이들도 Cherokee Nation [체로키족 보호구역](#)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Cherokee Nation 당국이 이들의 Cherokee citizenship을 갑자기 박탈합니다. 근거는 부모 둘 다 순수한 Cherokee여야만 자식도 Cherokee로 인정한다는 ‘급조된’ Cherokee by blood 원칙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소송전을 벌이면서 서로 옥신각신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Cherokee와 백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은 Cherokee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어와 교양의 환상 밀착 COLLABORATION!

세상 공부가 절실한 다 큰 어른들의 기초 교양영어 클래스

수십 년 외워도 안 되던 기초 영어, 핵심은 네이티브에 있다!

허구한 날 단어장만 붙잡고 있어도 영어 한마디 못 하는 진짜 이유는?

‘네이티브 영어’를 알아야 진짜 말이 통하니까!

요즘 당신의 뒷목을 강타하는 marmalade dropper, muffin choker는? wet cappuccino와 dry cappuccino 중 당신의 취향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네이티브 영어에 더 가까이 다가가라!

하룻밤 사이 단숨에 읽는 기초 교양과 요즘 영어!

미국인은 왜 FOX NEWS를 욕하면서도 볼까? San Francisco와 Massachusetts는 같은 정당을 찍어도 코드가 너무 다르다? 매일 화두에 오르는 미국 정치의 속사정, 세계를 관통하는 미국 문화의 정수를 엄선했다! 단숨에 쉽고 재밌게 보통의 어른들이 갖춰야 할 일반 상식을 꿰뚫는다!



영어 잡학 사전- 시사, 정치, 역사, 종교 편
OmniDictionary for American/British cultural studies
— politics / history / religion

9 791159 240690 04740
ISBN 979-11-5924-069-0 값 10,000원